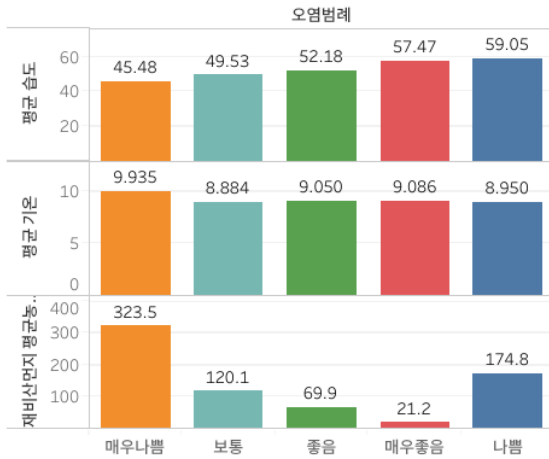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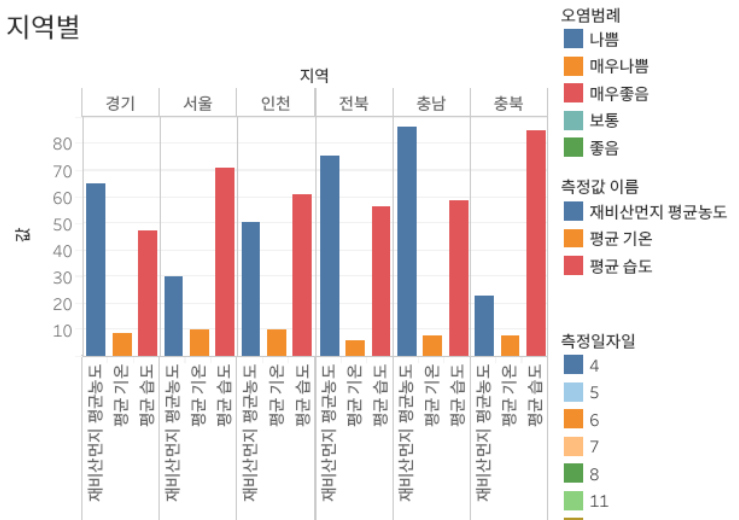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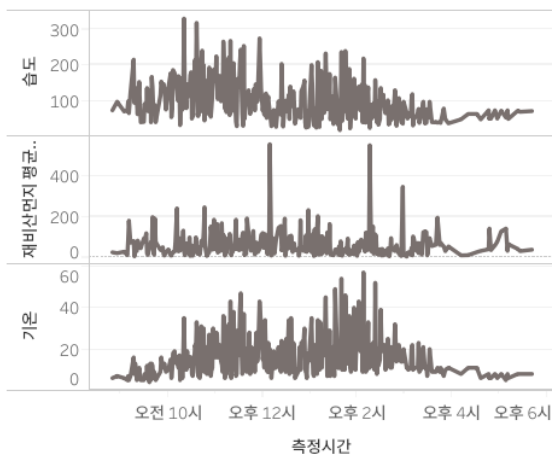
오염범례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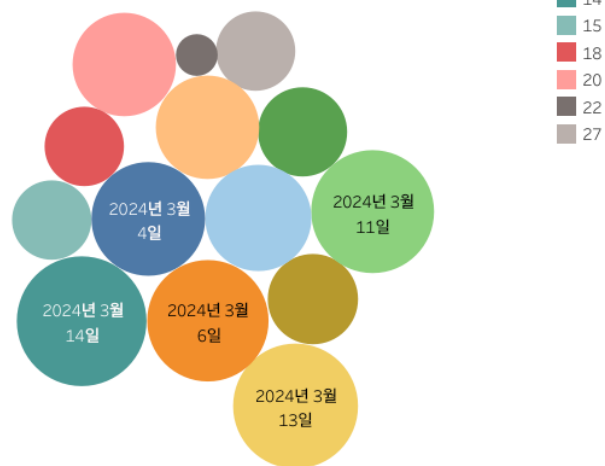
지역별



측정시간대별



측정일자별



차트에서 보여지는 재비산농도는 차량의 타이어(휠)와 도로면의 마찰에 의해서 재비산되는 먼지(PM10)의 농도를 말하는 것으로 미세먼지의 농도를 높이는 지표 중 하나이다. 위에서는 기온, 습도와 재비산농도가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러 차트를 이용해 분석해보았다.

첫번째 막대차트에서는 오염범례 즉 미세먼지 농도가 어떻게 표현되는지에 따라 각 요소를 비교해보았다. 주로 습도가 낮고 기온이 높을 때에 재비산먼지농도가 매우 나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번째 막대차트에서는 지역별 재비산먼지농도를 알 수 있었다. 충남지역이 가장 높고, 충북지역이 가장 낮은 재비산먼지농도 수치를 보이고 있는데 기온은 그 원인과 무관해 보인다.

세번째 선그래프에서는 어떤 시간대에 재비산먼지농도 수치가 가장 큰지 보여주고 있다. 아무래도 차량활동량이 가장 많고 기온이 비교적 높은 10시부터 2시 사이가 재비산먼지농도 수치가 가장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싶다.

마지막 원차트에서는 일자별 재비산먼지농도 수치를 시각화해 보여주고 있다.